

2012년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작가 선발 심사평

□ 시각예술부문(1차)

인천아트플랫폼은 개항기 근대 건축물을 배경으로 하여 조성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첫째, 새로운 예술 창작 발전소, 둘째, 국제 네트워크 형성의 플랫폼, 셋째, 발랄한 문화시민과 함께하는 공간, 넷째, 지역문화 활성화의 코어로 기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심사에 임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었다.

심사를 마치고 드는 첫번째 소회는 예상보다 작가들의 수준이 꽤 높은 편이어서 고무적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국외작가들의 경우에도 과거의 경우보다 부쩍 다양하고 수준높은 작가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 국제 네트워크 형성의 플랫폼이라는 기능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돋보였다. 다만 근래 들어 한국,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비슷한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레지던시 프로그램들 간의 차별화와 역할 분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인천아트플랫폼을 포함한 여러 복합문화예술공간들에서 공히 고민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성 부분도 심사과정 중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사실 일부러 고려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해결이 될 정도로 지역기반 활동작가들의 수준이 훌륭한 점이 만족스러웠다.

마지막으로 심사과정 중에 재차 강조되었던 부분이 있어 덧붙이고자 한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의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활동하는 작가보다는 실제 이러한 창작지원 프로그램의 보조가 더더욱 절실한 작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그 공공성을 담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여러 심사위원이 공감하였던 바, 차후의 심사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심사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는 점을 재차 개진하고자 한다.

심사위원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경운
심사위원	아트스페이스 휴 대표	김노암
심사위원	H Zone 대표	이대형
심사위원	인천대학교 겸임교수	차기울
심사위원	인천아트플랫폼 학예팀장	한재섭
심사위원	인천아트플랫폼 큐레이터	오혜미

□ 시각예술부문(2, 3차)

인천아트플랫폼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이미 내실 있는 운영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 제 3기 지원자들 역시 일정한 경력과 작업의 구체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지닌 우수한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이 점을 확인해주었다. 전반적으로 작가들의 수준이 상향화 된 가운데 다양한 현대미술의 면면들이 지원하였다.

대체적으로 특정한 경향과 유행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전통적인 평면회화, 특히 한국화 분야의 지원이 두드러졌다.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레지던시 사업의 특성상 지역과의 연계성 역시 심의의 주요 대상중 하나로 고려되었다. 전체 작가의 면면들은 오늘의 한국미술이 지닌 다양한 표정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몇몇 작가는 인원 제한이라는 제약에 탈락한 아쉬움이 남는다.

레지던시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 호혜와 개인의 발전이라는 측면이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아트플랫폼의 심사와 운영에서 그러한 답을 확인하고자 한다.

심사위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공성훈
심사위원	전 미술세계 편집주간	김상철
심사위원	성곡미술관 학예실장	박천남
심사위원	단국대학교 교수	하계훈
심사위원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이승미

□ 공연예술부문

2012년도 인천아트플랫폼 공연예술 부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작가 선정공모 심의를 진행하면서,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의욕적이고 참신한 제안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장르가 중복된 '청이공간'과 '만요컴퍼니' 중에 제안의 우수성에 앞선 만요컴퍼니 선정하였고, 기타 프로젝트 계획의 충실도, 발전가능성, 일반시민과의 소통 등 아트플랫폼 운영목적에 기여도를 고려하여 '연희컴퍼니유희', '신재훈', '만요컴퍼니'등 3개 팀을 선정하였다. 해외 입주작가의 경우, 대만의 Tzu-ch yeh는 아트플랫폼 입주에 대한 열정과 제출한 포트폴리오의 탁월한 우수성과 입주후의 계획(안)에 심사위원들 모두가 깊은 공감을 얻어 선정이 되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앞으로의 행운을 빈다.

심사위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	박인건
심사위원	부평아트센터	관장	조경환
심사위원	인천아트플랫폼	관장	이승미
심사위원	인천아트플랫폼	프로듀서	지영철

□ 문학·비평부문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각 예술 중심이다. 그런 까닭에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는 문학이나 예술비평 분야는 지원자가 많지는 않았다. 이번 심사에서는 예술가들의 검증된 능력, 아트플랫폼 입주 후 활동 계획을 중심으로 심사하였고 그 외에 지역사회 참여, 아트플랫폼 입주 작가와의 교류에 대한 의지 등을 점검해보았다. 심사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직 완전한 전문 예술가로서 자기의 입지를 갖춘 작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보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예비 예술가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그 분들의 열정이 인터뷰 심사 때 느껴졌기 때문이다.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해주신 예술가들께 감사드린다.

심사위원	소설가	하성란
심사위원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이현식